

중소기업 '인력대란' 모면할 듯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20여만명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을 막기 위해 3년간 취업한 뒤에는 1년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키로 했다.

또 임금이 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으로 인한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내국인 고용 노력을 의무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 처리문제와 관련, 법안은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

법체류자는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중소기업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당장 불법체류자 강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 제도 병행으로 인한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연수생 쿼터는 4만 5천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포함,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근로자로 유입될 경우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중기협중앙회 이국영 외국인연수생협회장은 "두 제도가 병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인력 도입 규모를 비슷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제는 불법체류자 출국을 반박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의팔, 이하 외노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들을 연수생 신분으로 들여와 연수는 전혀 시키지 않은 채 단순노동에만 종사하게 해 온 권법의 제도"라며 "국회는 외국인력 정책의 외곽을 가져오게 한 주범인 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외노회는 또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될 경우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생과 근로자로 서로 다른 지위를 갖게 해 헌법의 차별금지조항에 전연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관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병행 실시는 또 다른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3년간 취업한 외국인, 1년이상 출국 의무화

외국인 채용 전 1개월간 내국인 구인활동 해야

제 출국으로 인한 인력 공백상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측면에서 안도하면서도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근로자로 전환되면 적발로 인한 벌금부담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며 "이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 전체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산업연수생의 임금도 따라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두 제도의 병행으로 인해 업체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연수생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단 병행 실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년 후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 제도가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협회, 래주투자 1차 회의 가져



지난 7월 4일 (사)한국석재협회 사무실에서 래주투자촉진위원회 1차 모임(가칭)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6월 래주시 석재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했던 임원 중심으로 합류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먼저 래주투자촉진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개별투자보다는 법인화를 통한 주주참여식에 대한

의견과 뜻있는 사람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협회측은 래주시가 국제석재산업단지에 한국석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세심하게 체크하는 동시에 중국에 한국석재단지 투자 그 첫 걸음에 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아프리카 '피의 다이아몬드' 규제 받아

아프리카 내전의 불법 자금원으로 활용되어 온 '피의 다이아몬드(Bloody Diamonds)' 거래가 오는 8월부터 국제사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과 피에널설 타인스는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이 다이아몬드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격심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등이 원산지의 수출상표기를 의무화하는 '킬리리 프로세스' 협약에 서명하기로 했으며, 아프리카 서북부의 라이베리아인 서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7월말까지가 서명 시한인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유럽 등의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에 다이아몬드를 수출할 수 없게 되며 벨기에·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다이아몬드 가공국들과의 교역도 금지된다.

유엔이 주도하는 이 협약은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의 국제시장 유통을 막음으로써 내전 기금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목적 아래 3년 전부터 추진되었다. 남아공, 보츠와나, 미국, 캐나다 등 내전과 무관한 주요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은 이미 협약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유엔 및 협약 주도국들은 다이아몬드 유통 제한을 통한 자금줄 압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

"변화하는 주거문화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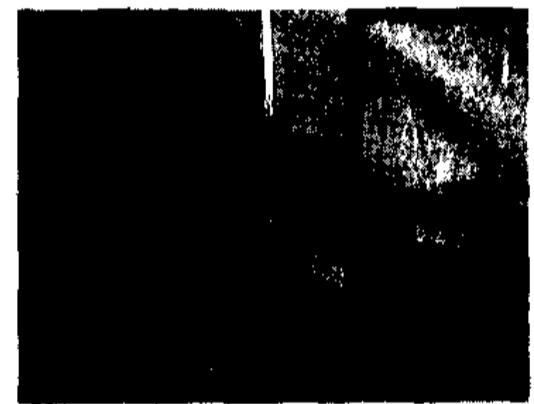
변화하는 주거문화와 건축자재의 신기술의 교류를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삼성 코엑스(COEX)에서 「2003 경향하우징페어 'Summer Festival」이 열렸다.

경향신문, SBS, e하우징, 조달청, 서울시,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경기도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국내 우수 조경업체 100여 업체가 전시 공간 내 1000여평의 조경 테마 전시관을 설치하였고, 그 외 100여 업체가 참여하고 건축자재 등 10,000여점을 출품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게다가 하루 2만여명의 관람객이 줄을 이은 이번 전시회는 진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첨단건축자재가 주목을 받았다.

전체 전시장은 도로·교통시설, 조경·체육시설, 학교시설, 전기·정보통신, 급수·위생 등의 공공시설부분과 가구·인테리어, 건축공구·건설장비, 급

벽돌은 층적층수가 가능하여 어린이 놀이터나 산책로 이용하기 좋으며 색상 또한 다양하여 외관이 화려하고 산뜻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바닥재로는 참숯, 옥재 등이 첨가된 제품이 주류를 이루어 환경 뿐 아니라 건강도 고려한 제품이 늘어났으며 강화마루나 온돌마루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게 현 추세이다.

특히 시공의 편리함과 건강을 고려하여 개발된 한 업체의 옥미장은 현대인이 즐겨찾는 사우나 뿐 아니라 아파트, 병원, 사무실 등의 미장미감재로 사용함으로써 욕실 이용, 각종 병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제품도 전시되었다.



건강을 고려하여 개발된 옥재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첨단건축자재들 주목받아

수위생제, 구조재, 내외장재, 창호재 등의 하우징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시선을 잡은 곳은 조경시설부분.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편안하고 인락한 휴식공간을 찾는 현대인들이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조경이 현대적 감각에 맞게 꾸며져 있었다.

한 업체에서는 대리석 질감을 재현한 인조석재를 개발하여 건축내·외장재와 바닥재로도 사용하게 하였으며,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자연분출 개발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왔다.

이렇듯 자연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조경시설에 걸맞게 편선과 전원주택도 선보였다.

주5일제 근무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말을 자연 속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편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보디치노

처럼 보이지만 훨씬 좋은 L.M대리석

그동안 생산량 부족으로 제때 공급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오며, 지난 5월말 생산시설을 증설하였사오니 주문 즉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66-5 302호 대표 이동영
H.P:011-561-8488 TEL:(051) 582-3919 FAX:(051) 582-3918

엄청쌉니다~

샘플보관소

서울 : 031-424-8250 018-245-3213

부산 : 011-561-8488

대전 : 042-477-6641

대구 : 054-955-8200

광주 : 011-635-2500

진주 : 011-551-8627

제주 : 011-696-4970